



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악화

채원영 연구원

■ 2012년 4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.89%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음.

- 계절적인 요인과 주택경기 부진으로 2012년 1/4분기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¹⁾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.05%p 높아졌음.
-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.79%로 2006년 10월 0.94%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음.
 - 이 중 집단대출 연체율은 1.84%로 전월 말 1.80% 대비 0.04%p 상승하였는데, 이는 부동산 경기부진에 따른 시세 하락 등으로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.
- 신용대출의 연체율은 1.08%로 전월 말 1.01% 대비 0.07% 상승하였음.

■ 기업대출 연체율 또한 1.49%로 전월 말 1.32% 대비 0.17% 상승하였음.

-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0.47% 대비 0.29%p 상승한 0.76%임.
 - 이는 건설 및 부동산PF, 조선 관련 업종²⁾의 현금흐름 악화 및 일부 제조업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때문임.
-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.73%로 전월 말 1.58% 대비 0.15%p 상승하였음.
 - 부동산PF 대출 제외 시 연체율은 전월 말 1.33% 대비 0.11% 상승한 1.44%임.

■ 2012년 대내외 불안요인 및 주택·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국내은행의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채권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임.

(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외)

1) 가계대출 증감액(조 원): (2011년 2월 중) 2.2 → (3월 중) 1.7 → (4월 중) 2.6
(2012년 2월 중) 0.5 → (3월 중) △0.4 → (4월 중) 1.3

2) 주요업종 기업대출 연체율(%): 건설업(2012년 3월 말) 2.58% → (4월 말) 3.20%
부동산·임대업(2012년 3월 말) 1.85% → (4월 말) 1.92%
부동산PF대출(2012년 3월 말) 5.58% → (4월 말) 6.76%